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경디테일의 특성*

이상석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Details for Memorialization

Lee, Sang-Su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details in representing symbolic images in memorials on the themes of war, tragedy, a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emorial landscapes, the researcher divided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details into 3 analysis categories. They are the symbolic application of landscape elements, the embodiment of landscape details, and the organization of landscape details to represent symbolic images, for example, memory, mourning, reflection, healing, glory, and identity.

Among details in 24 memorials designed in or after 1970, 133 symbolic details were selected including 64 items in Korea. The analysis revealed that among 30 elements used by designers for memorialization, walls, ponds, sculptures were used more often than other elements in representing the meaning of mourning, reflection, and healing that are the basic function of memorial. In regard to detail form, the designers used basic shapes like circles, squares and rectangles,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to heighten the symbolic effect of shapes in confined form. Stone and water utilized from nature were also used as main materials because of their materiality meaning of death, eternity, life, and healing. The techniques of using lighting, fire, and sound were introduced to make details more effective. Details were organized in harmony and repetition to represent the flow of time and space in symbolic images.

The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memorial landscapes in Korea that were different from other country. First, in designing memorials, most designers in Korea have been more focused on the organization of space than the details in memorials, and so, they have been neglecting to deliver symbolic image through detail design, while depending mainly on the introduction of art works. Lastly, because they introduced traditional elements which have little relation with the symbolic image needed, there have been many details which inaccurately represent symbolic meanings.

Key Words : Memory, Memorial, Landscape Detail, Symbolic Image, Memorial Landscape

*: 이 논문은 2000년도 순천대학교 장기해외파견교수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동서양 조경사의 많은 유적들은 대부분 역사상 중요한 인물, 종교, 사건,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어느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져 왔다. 기념공간으로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 형태는 묘지로서 개인의 심상에 자리잡은 기념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때로는 영웅이나 전쟁의 희생자, 비극적 사건으로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공동의 기념공간이 만들어져 왔다(Brooks, 1997).

과거의 기념공간은 대부분 묘지나 이와 관련된 아치, 다리, 기둥, 불, 못, 깃발, 문, 메달, 기념비, 동상, 인물 조각, 명판, 타워, 성당 및 교회, 건물과 같은 기념물이 도입되었다(The commission of fine arts, 1946). 이러한 경향은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국내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예를 들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동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물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전쟁 기념공간이나 한국의 4·19 및 5·18 민주화운동 기념공간에서 볼 수 있듯이, 조각이나 건축물 위주의 단일한 조형물보다는 조경설계를 통하여 기념공간이 조성되고, 다양한 디테일이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설계의 대상으로서 기념공간과 설계행위로서 기념성을 구현하는 것은 조경설계의 주요한 영역이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의 기념공간에 대한 설계는 공간설계에 치중되었고, 외부공간에는 동상, 기념탑, 조각을 도입하는 수준에서 설계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조경설계는 기념물을 위한 외부공간의 조성 또는 기념물과 외부환경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과 디테일의 설계를 통한 기념성의 구현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대에 조성된 공동의 기념공간에서 조경 디테일 설계를 통하여 기념성의 세부개념인 죽음의 추모, 생명감, 영속성, 명예고양, 사건의 묘사·설명·체현, 치유 및 위로 등 기념내용이 디테일의 도입, 디테일의 형상, 디테일의 구성에 어떻게 상징적으로 구현되었

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조경디테일 설계에 대한 계고를 통하여, 설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한 대상으로서 다양한 조경디테일 설계의 방안을 제시해주고, 설계의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경디테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게 된다.

2. 연구사

기념성을 구현하는 디테일에 대한 관련연구로서 형태와 상징에 대한 미학, 인류학이나 심리학적 측면의 접근, 조각이나 건축에서 기념물의 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조경분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은 조경분야 전문잡지에서 제한적으로 기념공간의 설계작품을 비평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왔으며, 기념공간의 디테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념공간에서 기념성의 구현에 관련된 연구로는 공원설계의 기념성의 문제에 관한 연구(유병림, 1996)에서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설계와 재료의 메타포(metaphor)에 관한 서술적 연구가 있었으며, 기념공간 및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디테일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연구로서, Wasserman(1998)의 기념공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기념성의 구현을 위해 공간설계나 기념공간의 기능, 위치, 도입요소에 대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지만,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디테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II. 이론적 고찰

1. 기념과 기념성

과거의 사건과 일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심상에 자리잡고 있는 사적인 것이나 사회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공동의 경험이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념하려고 하는 대상과 주체에 관한 것과 기념의 목적, 즉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에 관련된 것이다. 기념공간은 기념의 대상에 따라 개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개인적 기념공간

(individual memorial)과 다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공동의 기념공간(collective memorial)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념주제에 의해 전쟁, 사건, 민주화운동 기념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기념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설계가나 비평가들이 언급해 왔지만, Wasserman(1998)의 언급이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그녀는 기념공간은 추모, 회고와 치유, 의식, 집단적인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서 지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영혼을 위로하고, 공동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념의 행위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죽음의 추모, 과거의 회상, 사건에 대한 사회적 환기 및 치유, 그리고 관계자의 명예 고양의 목적이 있으며, 사회나 국가는 이를 통하여 개인·사회·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는 기념성의 상승과 커뮤니티의 기억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집단적인 행사나 토론회는 공공의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공동의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기념의 내용은 기념의 대상과 기념공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기념대상에 있어 개인의 기념공간은 일생을 통한 업적을 기념하려는 성격이 강한 반면, 공동의 기념공간은 다수의 죽음을 추모하고 사건에 대한 의미를 기념하게 되므로 기념의 성격과 구현되는 조경디테일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어, 비교적 규모가 크고 다양한 디테일이 도입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쟁, 비극적 사건,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주제를 갖는 공동의 기념공간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죽음의 추모, 생명감, 영속성, 명예 고양, 사건의 묘사·설명·체험, 관계자나 사회의 치유·위로, 공간의 신성·엄숙함,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 승리감, 전쟁이나 사건의 미화, 전쟁이나 사건의 슬픔을 기념성 구현의 구체적 내용으로 고려하였다.

2.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경디테일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디테일 설계는 예술활동으로서 조경설계의 어느 대상보다도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상징적 표현이 요구된다. 설계가는 표현의 구체성에 따라 사실과 추상의 범위 내에서 상징적 표현을 시도하게

되는데, 추상적 질이 낮은 사실적 표현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하고 깊이가 없으며(Jellicoe, 1970), 기념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자칫 감정적인 반응을 조장하거나 사건의 이미지를 고정화된 사실로서 전달하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추상적 표현은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설계자의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게 하지만(Lavoie, 1998), 추상적 표현에 의해 보는 사람들에게 불분명하게 인식되어 사회적 비판과 논쟁의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는 적절한 수준의 상징적 표현을 시도하게 된다.

기념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설계가는 조경디테일을 통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상징적 표현의 요소로 도입하는가는 디테일 설계의 첫 번째 시도이다. 기념공간에 도입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요소는 예술적인 작품, 건축물, 기념벽, 수목, 폭포, 조명, 기념식물, 야생동식물, 역사적인 물건 등이 대상이 되며(Wasserman, 1998), 이러한 도입요소는 다양한 표현의 레퍼토리를 제공해준다(Jorgensen, 1998). 따라서 도입요소는 단순히 기념공간을 구성하는 실체만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디테일 설계의 주요한 관심은 기념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Kirkwood, 1999), 이러한 과정에서 설계가는 설계개념을 형태, 재료, 색, 기법을 이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디테일은 개체로서만이 아니라 디테일의 반복이나 상호관계에 의한 디테일의 구성을 통하여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념공간의 공간구성과 관계를 맺어 기념의 의미를 전달하게 되므로 기념의 또 다른 상징적 표현의 수단으로 디테일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기념공간에 도입되는 조경디테일의 도입요소, 디테일의 형상, 그리고 디테일의 구성을 통하여 구현되는 디테일의 특성과 기념의 내용과의 관계의 분석은 연구의 주요한 내용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전쟁, 비극적 사건,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하는 국내외 공동의 기념공간을 대상으로 하였

으나, 동일한 주제의 기념공간일지라도 그 대상이 다양하므로 조사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념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조각이나 건축물과 같은 기념물 위주의 공간이 아닌 조경설계의 대상으로 외부공간에 조성된 기념공간으로서 둘째, 70년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설계된 작품으로서 설계작품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접근과 현장조사가 가능하며, 한국에서 조성된 사례가 있는 주제의 기념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밖에 전쟁 기념공간의 경우, 그 동안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사회적으로 주요한 관심이 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한국전쟁 기념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선정된 기념공간은 전체 24개소이며, 이 중에서 전쟁기념공간은 16개소로 제2차 세계대전 10개소, 베트남 전쟁 3개소, 한국전쟁 3개소이며, 비극적 사건 기념공간 3개소, 민주화 운동 기념공간 5개소였다. 또한 기념공간은 다양한 디테일에 의해 구성이 되어 1개의 기념공간에 다수의 디테일이 조합되어 있으므로 기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분석 대상이 되는 디테일의 종류와 개체 수는 기념공간의 수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어, 분석에 사용된 디테일은 국내사례 64개, 국외사례 69개로서 전체 133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연구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으며, 문헌연구는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문헌연구에서 나타난 기념공간에 대한 관련자료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선정된 기념공간에 대하여 설계가의 설계개념과 디테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계작품에 관련된 도서 및 보고서, 비평자료를 수집하여, 기념 내용이 디테일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연구대상 디테일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념공간에서는 원래의 설계안과 달리 의견수렴과정에서 디테일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시공된 결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일한 디테일이 반복되는 경우, 하나의 분석단위로 적용하였다.

디테일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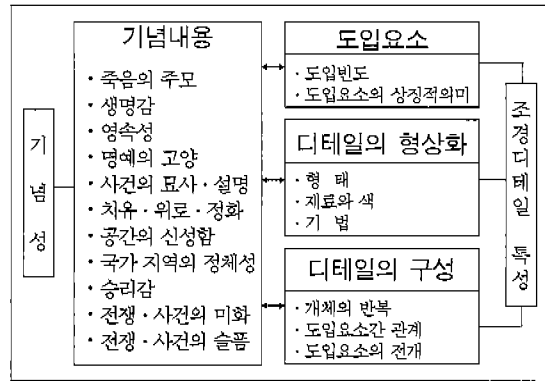


그림 1. 분석의 틀

계가 기념의 내용을 디테일의 도입, 디테일의 형상화, 그리고 디테일의 구성을 통하여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국내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조경디테일의 도입에 대한 분석에서는 각 디테일 및 유형별 도입빈도에 대한 분석과 기념의 내용과 표현대상으로서 도입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형상화된 디테일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디테일의 형태, 재료와 색, 기법을 통하여 구현된 기념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과 달리 디테일의 구성에 관한 분석은 기념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디테일이 어떻게 연계나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디테일의 전개와 공간구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IV. 조경디테일의 분석

1. 조경디테일의 도입

1) 도입빈도

도입요소별 빈도를 보면 전체 30종류, 133개의 디테일 중에서 기념벽 21회, 못 11회, 보행로 및 조각 9회, 수목·부조 6회, 추모관·폭포 및 벽천·포장분양 5회로 나타났다. 기념벽과 못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벽은 수직적 요소로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그림 및 시 등 기념효과를 높일 수 있어, 벽에 이름을 적는 것은 기념공간에서 죽음을 추모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며, 못은 생명을 의미하는 물을 담는 도구로서 생명의 영속성과 회고와 치유를 위한 주요한 수

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와 전체의 도입요소별 디테일의 수를 비교해 보면, 구조요소인 기념벽, 추모관, 묘지, 계단, 기타구조물, 못과 수로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기념벽의 경우, 외국에서는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부조나 추모비와 같은 예술작품을 대체요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도입되었다. 이 밖에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념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추모관, 묘지, 계단, 담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구조물이나 못과 수로와 같이 조경설계를 통하여 기념성이 구현될 수 있는 디테일이 적게 도입되고 있어, 국내의 설계자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요소를 이용하거나 전통적인 요소에 의존하여 기념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 도입빈도를 비교해보면, 국내의 경우, 예술작품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경요소, 상징물, 구조요소의 도입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국내에서는 조각가들이 만든 예술작품을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반면, 조경설계의 대상인 구조요소, 수경요소, 상징물을 이용한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디테일을 통하여 구현되는 기념 내용의 빈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이나 사건의 묘사·설명·체험, 죽음의 추모, 국가·지역의 정체성 구현, 공간의 신성·엄숙함의 표현이 높게 추구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전쟁이나 사건의 묘사·설명·체험, 공간의 신성·엄숙함, 죽음의 추모를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국외에서는 죽음의 추모, 전쟁이나 사건의 묘사·설명·체험, 국가·지역의 정체성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디테일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념내용의 중요성이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죽음의 추모라는 본질적인 기념내용 보다는 전쟁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과 공간의 의미부여에 설계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별적인 디테일에 있어서 제한되고 단순한 기념내용을 전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디테일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 도입요소의 기념성

(1) 구조요소

기념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도입요소인 기념벽은 전쟁 기념공간인 VMO, KWS, CMH, GOR, VMS, ECM, VMW(P-1)와 같이 기념벽에 전쟁사망자의 이름을 적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전쟁이나 민주화 운동을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4·19묘지공원의 수호예찬의 비(P-2)에는 시를 적어 민주화 운동 참가자의 명예를 고양하고 있으며, 용산전쟁기념관과 5·18묘지공원의 부조벽은 용벽의 기능이 복합된 벽으로 전쟁이나 민주화 운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서양에서는 ECM의 스틸러스(steles)(P-13)와 같이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벽이나 기념비로 자주 사용된 세노타프(cenotaph)가 개체나 집단의 죽음을 표현하기 자주 사용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추모관 내부에 별도로 위패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기념벽과 다르게 4·19묘지나 5·18 묘지공원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비석(P-3)을 이용하여 죽음을 추모하고 있으며, 특징적으로 미국의 ONM에서는 유해가 없는 곳이지만 비극적 사고로 죽은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하는 빈 의자를 상징적 조형물로 도입하였다.

수직적 요소가 갖는 기념성은 고대 이집트 사원에 설치되었던 오벨리스크와 같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체로서의 의미를 가지며(Gibson, 1996:31), 현대에 들어와서는 워싱턴 모뉴먼트와 같은 상징적 조형물(P-4)로 나타나고 있다. 기념공간에 나타난 수직적 구조물은 IVM의 12m 높이의 25개의 석회석 기둥과 IJM의 오벨리스크의 모양을 본 뜬 기둥, 4·19묘지공원이나 부산민주공원에 열주가 도입되어, 죽음을 추모하고 명예를 고양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로 형상화된 것으로 BHM에 설치된 6개의 유리타워(P-5)는 죽음의 6개의 기둥, 6개의 가스방, 그리고 600만 유대인들의 죽음, 6개의 가스실을 의미하는 다의적인 요소로 도입되었다.

담, 문, 다리, 계단은 도입빈도는 적으나, 공간을 구분하거나 새로운 공간과 상태의 시작을 암시하는 요소로서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담은 경계를 만들어 신성한 곳과 세속이라는 공간의 상징적인 분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기념공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요소이지만 현대의 기념공간 설계에서는 드물

표 1. 기념공간 도입요소

| 구분 | 구조요소 ^{a)} | | | | | | | | | | 수경요소 | | 예술작품 | | | 상징물 | | | 사건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기념비 | 의지 | 추모신 | 묘지 | 기념물 | 다채 | 담 | 연 | 다리 | 제단 | 기념비 | 기다려조각 | 못 | 수조 | 연수 | 복원·보존 | 부조 | 조각 | 기념탑 | 주모비 | 수목 | 마위 | 상징유물 | 국기 | 표상소형 | 기념비·기념물 | 기념물 | 기념물 | 기념물 | 기념물 | | | | |
| 세계전쟁 | Indiana's Veterans' Memorial(IM1) | | | | A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ast Coast Memorial in New York(ELM2) | A | | | | | | | | | | | | | | | | | | | | | H | | | | | | | | | | | |
| | USS Arizona Memorial(UAM3) | | | | | | | | | | | I | | | | | | | | | | | | H | | | | | E | | | | | |
| | Women's Memorial at Arlington National Cemetery(WMA5) | C | | | | | | | | | | A | BF | C | D | | | | | | | | | | | | | | | | | | | |
| | Normandy Memorial Garden(NMG5) | AH | | | | | | | | | | EIT | A | | | B | | | | | | II | | | | | | | | | | | | |
| | The Honor Memorial in Indianapolis(CM12) | A | | | | | | | | | | | AD | | | | | | | | | | | | | | | | | | | | | |
| | Garden of Remembrance in Seattle(GOR3) | A | | | | | | | | | | | | | | IV | | | | | | | | AC | | | | | | | | | | |
| | World War II Memorial in Tokyo Memorial Park(WTM3) | A | | | | | | | | GH | | | | | B | | | | | | | | | | | | | | | | | | | |
| 베트남 전쟁 | Jwa Jwa Memorial(JJM4) | | | | AD | | | | | | | A | A | C | | | | | | | | | | | | | | | | | | | | |
| | Boston Holocaust Memorial(BHM3) | AE | | | | AD | | | | | | BC | | | | | | | | | | | | | | | | | | | | | | |
| | Vietnam Veterans Memorial in Washington D.C.(VVMW3) | A | | | | | | | | | | AK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전쟁 | Vietnam Veterans Memorial in Sacramento(VMS3)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 | | | | |
| | The Vietnam Veterans of Oregon Living Memorial(VMOS5) | A | | | | | | | G | | | BC | | | B | | | | | | | | | | | | | | II | | | | | |
| | Korean War Memorial in Washington D.C.(KWM6) | AE | | | | | | | | | | EJ | | AB | | | | | | | | | | | | | | | II | | | | | |
| 미국 독립전쟁 | Korean War Memorial in San Joseon(KWS3) | A | | | | | | | | | | | BF | | | | | | | | | | | | | | | | | II | | | | |
| | 용인선원기념공원(9) | A | AE | | | | | | G | G | | G | | | | | | | | | | | | | | | | | II | E | E | | | |
| |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OM7) | | AK | | | | | | | E | | | | AF | | | | | | | | | | | | | | | | F | E | | | |
| 미국 독립전쟁 | Bijlmermeer Memorial in Amsterdam(BJM8) | A | | | | | | | | | | F | B | F | | | | | | | | | | | | | | | A | C | | E | | |
| | Salem Witch Trials Tercentenary Memorial(STM3) | G | A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 | | | |
| | Civil Rights Memorial(CRM2) | | | | | | | | | | | | | BE | | BJ | | | | | | | | | | | | | | | | | | |
| 미국 독립전쟁 | 4·19 묘지공원(15) | J | A | A | AD | | GH | G | G | G | | G | | FG | | | | | | | | | | | | | | | ZE | 지 | D | | | |
| | 5·18 묘지공원(14) | 2E | | AD | A | | | GH | A | G | GH | G | | F | | | | | | | | | | | | | | | | E | F | D | | J |
| | 부산민주공원(12) | E | | A | | AD | | | | | | E | G | | D | | D | B | F | J | D | | | | | | | | | | | | | |
| | 서대문 독립공원(13) | 2F | | A | | | | | | | | | | | | | | H | E | D | D | | A | J | | | | | | | | 2F | E | E |
| 전체 (%) | 요소 | 133회(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형(%) | 62(46.6%) | | | | | | | | | | 23(17.3%) | | | | | 21(15.8%) | | | | | 17(12.8%) | | | | | 10(7.5%) | | | | | | | |
| 국내 (%) | 요소 | 64회(4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형(%) | 29(45.3%) | | | | | | | | | | 7(11.0%) | | | | | 14(21.9%) | | | | | 5(7.8%) | | | | | 5(7.8%) | | | | | | | |

- a: 분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경디테일의 상징의 종류에 따라 설계가의 의도나 사람들의 공유된 인식에 근거하여 설계를 통하여 형상화되는 구조요소, 물을 매체로 하는 수경요소, 기념공간에서 조각가들에 의해 만들어져 도입되어 온 예술작품, 사회나 국가적으로 상징요소로 공유된 가치를 갖는 상징물, 전쟁이나 사건과 관계된 역사적 유물로 구분하였다.
- b: (기념공간 표기 기호 : 디테일의 수)
- c: 기념내용에 따라 A: 죽음의 추모, B: 생명감, C: 영속성, D: 명예 고양, E: 사건의 묘사·설명·체험, F: 치유·위로·정화, G: 공간의 신성함, H: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 I: 승리감, J: 전쟁이나 사건의 미화, K: 전쟁이나 사건의 슬픔으로 구분하였다.
- d: 기념공간별로 주요한 디테일로서 상호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도입요소의 표기방식
- e: 2개 이상의 상이한 기념내용이 동일한 디테일에 나타나는 경우의 표기방식
- f: 기념공간별로 기념내용이 상이하며, 동일한 디테일이 2개 이상 도입되는 경우 표기방식
- g: 기념공간별로 기념내용이 동일하며, 동일한 디테일이 2개 이상 도입되는 경우 표기방식



그림 2. 기념성이 구현된 조경디테일

게 도입되고 있으며, 5·18묘지공원과 4·19묘지공원에서만 신성한 공간의 구분을 위해 제한적으로 전통담장(P-6)이 적용되었다. 문은 장소, 의식의 의도적인 변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도입되었는데, ONM에서는 폭발사건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2개의 상징적 문을 통하여 사건을 회고하도록 하였고, 5·18묘지공원에서는 추념문(P-7), 4·19묘지공원에서는 상징문을 도입하여 죽음을 추모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진입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다리도 심리적 측면에서 공간이나 상태의 전이를 의미하고, 무의식의 혼돈을 의미하는 다리 밑의 물과 결합되어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의 연결을 나타내어 전통적으로 인간과 영혼, 생명과 죽음을 암시하는 것(Gibson, 1996)으로 VMO에서는 나선형의 보행로 위에, 5·18묘지공원에서는 진입공간에 신성한 공간의 진입을 알리기 위해 연못과 더불어 도입되었다. 계단은 본래 수직적 높이 차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신성한 공간의 진입 전에 공간의 위계감을 부여하거나 체험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내의 기념공간에 주로 적용되었는데, 4·19 묘지에서는 공간의 분리를 나타내거나 유영봉안소의 진입 전에 계단(P-8)을 설치하여 신성한 공간으로 진입을 암시하기도 하였으며, 부산민주공원에서 고난의 체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2) 수경요소

물을 매체로 하는 수경요소는 죽음을 추모하거나 생명감을 부여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사용되었으며, 기념공간의 특성상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 못이 분수나 폭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되었다. 수경요소는 외국의 기념공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WMA(P-9)와 IJM에 도입된 못은 죽음의 추모와 생명감을 나타내고, 못이 연출하는 반영효과를 통해 회고와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간의 신성함이나 마음의 정화라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연못이나 수로와 달리 분수나 폭포는 역동적인 물의 연출효과를 이용하여 전쟁이나 민주화 운동의 승리의 표현이나 미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WMA에 도입된 제트분수는 전쟁에 봉사한 여성들의 집단적인 노력을 상징하였고, NMG에서는 상부

의 못으로부터 하부의 못 사이에 캔틸레버를 설치하고 폭포를 도입하여, 전쟁 중 사망한 군인들의 생명의 영속성과 영웅적인 행동을 미화하였다.

(3) 예술작품

예술작품은 기념공간이 조경설계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는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매체로서 인식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념공간의 한가지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전체 예술작품 중에서 국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술작품은 국내의 기념공간에서 주로 도입되는 요소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예술적 행위로서 디테일 설계를 하기보다는 공간체함과 전체적 구성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부조, 기념탑, 추모비 등 예술작품이 설계요소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용산전쟁기념관의 형제상(P-10)이나 5·18묘지공원, 부산민주공원에서 도입된 조각이나 4·19묘지공원의 기념탑(P-11)과 추모탑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의 예술작품은 대부분 개체로서 완성을 추구하여 다른 도입요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4) 상징물

어느 집단이나 사회에 의해 공유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상징물은 국기, 동식물, 조각, 건축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나타나는데(Whittick, 1961), NMG에서는 미국의 자생종인 참나무와 세쿼이아, ONM에서 미송을 도입하여 국가나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였고, STM에서는 죽음의 상징인 검은 쥐엄나무를 심어 죽음의 어두운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하였으며, 부산민주공원에서 민주를 상징하는 수목으로 피나무를 식재하였다. 종교 및 주술적 의미를 갖는 상징물로서 바위는 가장 오래된 기념물로서, 종교, 민간신앙, 장소의 상징으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이용되어 왔으며, GOR에서는 검은색 바위(P-12) 3개가 조합되어, 전쟁사망자들의 죽음과 영원한 삶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고유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동물, 식물, 기호, 물건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되는 상징조각은 ECM에서 독수리(P-13)조각을 설치하여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였고, 전쟁 참가자의 명예를 고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기는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집단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KWM에서는 19명의 병사들의 경사진 지형을 올라가는 삼각형 부지 최상단에 성조기를 설치하고,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주 진입로 좌우 측에 한국전쟁 참전국가의 국기를 배열(P-14)하여,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이밖에 포장공간에 수평적인 문양의 형태를 통하여 도입되는 상징으로는 KWS에서 한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공간의 바닥에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를 이용하여 상징적인 태극을 연출하였고, VMS에서는 검은색 석재표면에 가공방법을 다르게 하여 월남 지도를 표현하였다.

(5) 사건의 유물

ONM에서는 사건당시 생존했던 느릅나무를 보호하여 폭발사건을 회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BJM에서도 비행기 폭발당시 생존한 수목을 보호하여 주변에 기념벽과 보호벽을 설치하고 주변에 주민이 참여한 모자이크 포장을 하여 기념성을 높이고 있다. 서대문 독립공원의 경우 옥사로 사용되던 건물의 벽돌을 재사용(P-15)하고, 담과 망루(P-16)를 그대로 보전하여, 과거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복원하도록 하였고, ONM에서도 폭발로 인해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는 벽을 그대로 존치하여 사건의 회고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UAM에서는 침몰한 애리조나 함 위에 상징적 구조물을 설치하여 전쟁당시의 상황을 충격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용산 전쟁 기념공간에서는 전쟁당시의 무기를 전시하여 교육 및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건의 유물은 전쟁이나 사건 당시를 회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생장소에 그대로 도입될 경우 전쟁이나 사건의 묘사, 설명, 체험을 위한 효과적인 매체로 사용될 수 있다.

2. 디테일의 형상

1) 형태

기념공간에 나타난 디테일에서 설계가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는 원형, 사각형, 나선형, 수직선의 기본형과 자연 및 전통요소로부터 응용되거나 상징물을 형상화한 상징형과 상징적 의미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추상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형으로서 원형은 대부분 공간의 형태나 디테일의 형태로서 물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서 자주 도입되어, 물의 상징적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원형은 정방형의 형태와 결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VMO에서 정방형의 작은 석재에 원형의 못(P-17)을 만든 것이나 IJM에서 원형의 못과 정방형의 못을 대비적으로 설치하고 중간에 가느다란 수로로 연결하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형태적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원이 인간에 의하여 이용된 형태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서 생명의 상징으로서(Jellicoe, 1970), 시작과 끝이 없는 형태로서 영생이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Potteiger and Purinton, 1998), 정방형의 형태는 땅을 의미하고, 4개의 동일한 면은 안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Gibson, 1996). 또 다른 형태로서 생명감을 표현하는 나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CRM의 워터테이블에서 나선형의 이름배치로 표현되었다. 이 밖에 하늘을 지향함으로써 죽은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명예를 고양하기 위하여, 기둥, 기념탑, 추모비 등 수직적 형태요소가 도입되었다.

상징적 형태의 사례로는 WTM에서 일본사찰의 상징적 가치를 모방한 문이나 KWS에서 태극문양을 이용한 문양에서 전통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였으며, NMG에서 사람의 양손의 오므린 모습(P-18)을 형상화하여 생명체인 물을 담은 의인화된 못이 생명성과 치유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전통요소를 형상화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5·18 묘지공원의 고인들을 모방한 유영봉안소나 부산민주공원의 석총을 모방한 유영봉안소, 황룡사탑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은 충혼탑은 전통요소의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기념공간의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추상적 형태는 VMW의 기념벽과 같이 지형의 변화를 이용하여 벽의 형태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하여 방문객에게 죽음을 추모하고 전쟁의 슬픔을 표현하거나, 전쟁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UAM의 기념구조물은 패배와 승리를 상징하는 추상화된 구조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VMW의 기념벽처럼 추상적 형태는 사람들에게 불분명하게 인식되어 사회적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2) 재료와 색

설계의 표현매체로서 재료는 설계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설계의 상징적 매체 (Juracek, 1996)로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조각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시도해온 재료의 물성을 이용한 의미전달이나 재료의 형상화를 통한 실험은 현대에 들어서 조경 설계가에게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기념공간의 디테일에서 돌은 구조요소, 조각, 기념탑, 추모비, 청동 및 금속은 부조 및 조각, 유리는 상징적 구조물, 타일은 포장, 물은 수경시설에 사용되었다. 돌과 물을 주재료로 하고 청동 및 금속, 유리, 식물, 콘크리트, 타일이 부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모두 자연재료로서 영속성이 있는 재료가 사용되었다.

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역사 초기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조경작품에서도 역사성·예술성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심미적이고 영속성을 갖는 재료(Treib ed., 1987: Hansen, 1993)로서, 기념공간에서 설계가는 돌을 사용함으로써 영속성, 안정감 및 웅장함, 미적 다양성, 지역성을 표현하였다. 사용된 돌의 색은 대부분 검은색과 흰색계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VMW, KWM(P-19), GOR, VMO의 기념벽에는 보편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색 돌을 사용되었으나, 일본과 WTM과 IJM이나 한국의 5·18묘지공원(P-20) 및 4·19묘지공원과 용산전쟁기념관에서는 흰색의 돌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색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미국의 설계가는 죽음에 대한 직설적인 상징적 표현을 위해 검은 색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오히려 죽음에 대비적으로 밝은 흰색계열을 사용하는 반어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대부분의 국내의 예술작품이 흰색계열의 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KWS, ECM, IVM에서는 흰색계열의 돌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부분적으로 검은색 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의 선호에 의해서도 색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이 밖에 WMA, ONM, CRM의 수경요소에서는 물의 반영효과를 얻기 위하여 배경으로 검은색 돌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NMG에서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모아 온 돌을 다른 나라의 기념공간에 도입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물은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요소로서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예술적 요소로서 이용이 두드러져 기념공간 15개소에서 물을 설계매체로 사용하였으며, 수경시설을 통하여 도입된 빈도는 23회로 나타났다. 물은 생명감을 부여하거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특히 물이 갖는 반영효과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물을 가장 상징적으로 사용한 ONM에서 생명과 죽음의 시간인 9:01과 9:03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2개의 문(P-27)사이에서 장방형의 못(P-21)을 위치시켜 운명적인 순간의 상처를 달래고, 회고(O'Connell, 2000)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밖에 IJM의 정방형과 원형의 못, 그리고 수로의 조합, KWM의 검은색 돌로 만들어진 못에 담겨진 잔잔한 물(P-22), KWS의 2개의 못에 담겨진 물, BJM의 못에 담겨진 물은 반영효과를 통하여 사건의 회고와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이용하여, NMG에서는 상부의 못, 폭포, 하부의 자연형 못으로 물이 연속적으로 흐르도록 하고, WTM에서는 수로를 따라 물을 흐르게 하여 생명의 영속성을 표현하였으며, GOR의 폭포(P-23)와 CRM의 수벽은 죽은 사람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 물의 이용은 물의 존재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과거와 같은 공간의 분리나 신성함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밖에 재료의 사용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ONM에서 폭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2개의 시간의 문에 청동을 붙인 것이나 죽은 자를 상징하기 위한 빈 의자의 상부를 청동으로 하고 하부는 유리를 사용한 것(P-24), BHM의 유리타워나 CMH의 유리로 만들 벽을 도입하였다. 본래 유리는 깨어지기 쉬운 성질 때문에 충격에 약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생명의 연약함을 의미하고, 깨끗함은 죽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빛의 연출효과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조각에서 진행된 바 있으나, 기념공간에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3) 기법

(1) 내용의 설명

내용의 설명은 이름, 설명, 상징적 문구, 그림, 시를 이용하여, 기념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기념성을 높이는데 적용되었다. 기념공간에서 이름을 명기하는 것

과 기념공간에 관한 설명, 그리고 시는 모든 기념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징적 문구와 그림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름은 명기하는 방법은 ECM, GOR, VMW 등 대부분 외국의 기념공간에서 기념벽이나 기둥을 이용하여 표면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집단적으로 명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BHM에서는 이름대신에 유대인의 죽은 사람의 숫자(P-25)를 이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상징적 문구는 기념성을 높이거나 은유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었다. CRM에서는 검은색 옹벽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인 “UNTIL JUSTICE ROLLS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 MIGHTY STREAM”을 음각하여 표면에 얇은 수막이 흐르게 하여 연설문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고, BHM에서는 검은색 돌 위에 나치 하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을 복합적으로 암시하는 단어인 “SOACH”를 음각(P-26)하였으며, ONM에서는 시간의 문에 사고 시점인 “9:01”(P-27)과 종점인 “9:03”을 기록하여 대비를 이루었다. 그림은 4·19묘지공원이나 5·18묘지공원의 민주화 운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조나 KWM이나 용산전쟁기념관에서는 옹벽에 전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P-28)을 표현하여 주로 국내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다.

(2) 연출

디테일의 섬세한 연출을 통하여 기념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과 빛의 연출방법이 도입되었다. BHM에서 유리타워 아래 구멍에 가스불을 도입함으로써 가스실의 이미지와 유리타워에 기록된 600만 유대인의 대학살 사건의 영속적인 기억을 유도하였다. 빛의 반사에 의한 반영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ONM에 도입된 2개의 시간의 문 사이에 위치한 장방형의 못에서는 검은색 돌로 만들어진 못과 0.75인치의 얇은 물의 깊이를 이용하여 반영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 물에 반영된 하늘이 대비되도록 하였으며, VMW와 KWM에서는 검은색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기념벽 표면을 광내기 마감을 하여 고도의 반영효과(P-19)를 연출하여 죽음의 추모와 동시에 전쟁의 회고의 복합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빛의 투과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BHM의 유리타워에서

빛의 굴절을 통하여 타워를 밝히고, 확산된 유대인을 의미하는 번호를 비추도록 하였고, CHM에서도 곡선의 유리벽(P-29) 사이에 조명장치를 도입하여 방문객이 이동을 함에 따라 빛의 작용에 의해 각 개인의 이름이 숨겨나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연출하였으며, ONM에서는 희생자를 상징하는 의자의 유리받침 안에 조명을 하여 야간에 빛의 투과에 의해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3. 디테일의 구성

기념공간에 나타나는 디테일의 구성은 개체의 반복과 도입요소의 관계, 그리고 도입요소의 전개에 따른 구성에 의해 복합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개체의 반복에 의한 것으로, WMA의 분수에 도입된 200개의 노즐은 전쟁에 봉사한 여성들의 집단적인 노력을 상징하고, CMH에 도입된 27개의 유리벽은 벽의 조합에 의해 여러 개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KWM의 19개의 병사상은 38선과 남북분단의 상황을 의미하는 수의 상징이며, ONM에서 119개의 의자는 죽은 사람의 수를 나타내고, 사망당시의 사망자의 층별 위치에 따라 의자를 배치(P-30)하여 사건당시 폭발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입요소간의 관계에 의한 기념성의 구현은 대부분의 기념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구조요소나 수경요소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ONM에서 비극적 사건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시간의 문과 그 사이에 배치된 장방형의 못이 조화를 이루어 죽음의 시간을 회고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였으며, KWM에서는 삼각형 부지에 점진적인 지형의 변화와 함께 병사상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P-31)와 최고점에 위치한 성조기는 한국전쟁을 묘사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KWS에서는 원형으로 배치된 8개의 석제 벽(P-32)과 내부의 태극기 문양의 포장을 통한 공간 및 의미의 통합을 시도하였으며, IJM에서는 정방형의 못과 반대편에 원형의 못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수로를 놓아 땅과 하늘, 그리고 이것의 결합을 통하여 영혼을 위로하고 있다. 또한 UAM에 설치된 중앙이 가라앉고 외곽으로 가면서 확산되는 형태의 구조물(P-33)과 중앙에 위치한 성조기

는 진주만 폭격으로 인한 처음의 패배와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Mayo, 1988).

도입요소의 전개에 따른 공간구성은 BHM, VMO, VMW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BHM에서는 6개의 유리타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강한 시각 및 보행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VMO에서 생명의 기원을 의미하는 못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선형 보행로(P-34)를 따라 전사자 명단을 년대별로 분리하여 기념벽을 세우고, 출구에 위치한 마지막 벽에 "MIA (Missing In Action)" (P-35)을 음각하여, 베트남 전쟁의 애매 모호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VMW에서는 평탄한 지형에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설치된 기념벽에 시간대별로 전사자 이름을 나열하여 방문객에게 시간적 흐름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인접한 보행로가 내려감에 따른 전쟁과 죽음의 어둠, 올라감에 따른 미래로의 밝음을 표현하였다. 이와 달리 국내의 4·19 묘지공원과 5·18 묘지공원에서는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중앙의 보행로를 중심으로 하여, 계단·상징문·기념탑·추모관으로 연결되는 축을 구성하여, 공간의 위계에 따른 공간의 신성함이나 엄숙함을 표현하였다.

V.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쟁이나 사건을 묘사·설명하고 죽음을 추모하며, 국가의 정체성과 공간의 신성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국외의 경우 죽음의 추모가 주요한 내용인 반면, 국내에서는 전쟁이나 민주화 운동의 묘사나 설명에 중점을 두거나 기념공간의 신성함을 구현하는 것에 디테일 설계의 초점을 두고 있다. 도입요소는 구조요소, 수경요소, 예술작품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도입된 기념벽, 추모관, 추모비와 생명의 영속성, 회고와 치유,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수경요소가 디테일의 주요요소로 도입이 되었다.

디테일의 형태에 있어서 곡선보다는 직선을 자유곡선보다는 원곡선을 사용하고, 도형의 기본형태인 원형이나 방형의 형태를 주로 사용하여 형태의 완성감과 절제미를 높이려고 하였다. 디테일의 재료는 대부분 석재나

몰이 이용되었고, 청동재가 일부 도입되었으며, 검은색 수조에 담긴 잔잔한 물이나 광내기 마감된 검은색 돌은 고도로 연출된 반영효과를 나타내었다.

디테일의 구성에 있어서 개체의 반복에 의한 수의 상징적 의미의 전달이나 도입요소의 관계에 의한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입요소의 전개에 의해 방문객의 연속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미지의 상승 및 주제의 전개,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간구성에 있어 축이나 방향성을 부여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국내 기념공간의 디테일 특성은 첫째, 조경디테일이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매체로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간위계를 중시하는 관습적인 기념공간의 구성원리가 중요시되고, 설계가는 기념공간 설계에서 공간기능 및 배치를 통한 공간설계에 치중하므로, 디테일 설계를 통해 기념성을 적절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디테일은 단지 공간을 채우는 요소로서 도입되거나 공간개념이 디테일의 설계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둘째, 기념의 내용과 관계가 적은 전통요소나 개체적 독립성이 강한 예술작품이 지나치게 많이 도입되고 있다. 국내 기념공간에 도입된 화계, 전통담장, 당간지주 등 전통요소는 기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의미의 전달이 불명확하였으며, 예술적 행위로서 디테일 설계를 하기보다는 예술작품을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념내용의 표현이 진부하고 단순한 디테일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테일의 관계가 단순하여,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기념벽을 전쟁이나 사건의 설명을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수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며, 디테일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간위계에 따른 디테일의 도입이라는 획일적인 시도에 그치고 있다.

2. 연구결과의 시사점

기념을 하는 행위는 사회,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요인의 작용에 의해 국가, 사회, 심지어는 개인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디테일의 특성만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되므로 기념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례로 미국에서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기념벽이 국내에서는 전쟁이나 사건의 묘사와 설명을 위해 사용되고, 대체요소로서 4·19묘지나 5·18묘지공원에서 볼 수 있듯이 추모관을 기념공간 내 중요한 곳에 배치하여,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념공간의 설계는 공간 설계에 치우쳐 왔으며, 디테일은 이러한 공간을 채우는 기능요소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 많은 디테일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성의 구현이라는 설계의 본래 목적은 예술조각이나 몇 개의 전통적인 디테일로 표현되어 조경설계의 예술성, 디테일의 예술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본 연구는 기념공간 설계에 있어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기념성을 어떻게 디테일 설계에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기념공간의 조경설계는 관습적으로 시도되어 온 공간으로부터 디테일이 아니라 디테일로부터 공간으로의 접근, 또는 디테일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경설계의 중요한 부분인 예술적 측면은 공간의 구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를 구성하는 디테일의 예술성에 기초한 설계작품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장차의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전쟁, 비극적 사건,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대상으로 디테일의 특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과된 것으로 첫째, 기념성은 구현되는 주제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기념공간의 종류에 따라 디테일에 있어서도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일부 디테일에서는 작가 또는 설계경향에 있어 미니멀리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양식론 측면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의 기념공간은 설계목적이 뚜렷하고, 설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기 때문에, 기념성이 구현된 설계나 디테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계배경과 설계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초청하고,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린다 주얼(Linda Jewell)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용문헌

1. 유병림(1996) 공원설계에서 기념성의 문제. 한국조경학회지 23(4):40-49.
2. Brooks, Laura(1997) Monuments. New York: Todtri Production Ltd:56-79.
3. Calkins, Meg(2000) Power and Light. Landscape Architecture v90(7):55-59.
4. Dulat, Rageshwar Kaur(1995) Symbolism at Shalimar Bagh, Lahore. Critiques of built works of landscape architecture Vol. 2:10-18.
5. Gibson, Clare(1996) Signs and Symbol. New York: Barnes and Noble:31.
6. Jellicoe, G. A.(1966) Water. Studies in Landscape design Vol I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17-22.
7. Jellicoe, G. A.(1970) The landscape of symbols. Studies in Landscape design Vol II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2
8. Johnson, Jory(1991)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Abbeville Press:217-226.
9. Jorgensen, Karsten(1998) Semiotics in Landscape Design. Landscape Review 4(1):39-47.
10. Juracek, Judy A.(1996) Surfaces.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Inc.:11.
11. Kirkwood, Niall(1999) The Art of Landscape Detail.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12-13.
12. Lavoie, Caroline(1998) The wall/ruin: meaning memory in landscape. Landscape Review 4(1):27-28.
13. Mayo, James M.(1988) War Memorials as Political Landscape. London: Praeger:110-112.
14. O'Connell, Kim A.(2000) The Gates of Memory. Landscape Architecture v90(9):73.
15. Potteiger, Matthew and Purinton, Jamis(1998) Landscape Narra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 Inc.:34-39.
16. Rodriguez, Alicia(2000) New Meaning for an Old Wall. Landscape Architecture v90(1):22-25.
17. The commission of fine arts(1946) War memorials. Landscape architecture v37:17-19.
18. Treib, Mark, ed.(1993)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 A Critical Review. Cambridge: The MIT Press:80-85.
19. Wasserman, Judith R.(1998) To trace the shifting sands: Community, Ritual, and the Memorial Landscape. Landscape Journal 17:42-61.
20. Whittick, Arnold(1961) Symbols Signs and their meaning. Massachusetts: Charles T. Branford Co.:5, 3-13.

원고접수: 2001년 10월 26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1년 11월 12일

2인 익명 심사필